

여수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일부 1.285km² 해제

금오도지구 1.25km² · 거문 백도지구 0.035km²

재산권 침해 등 불편 사항 다소 해소될 전망

여수시 금오도와 거문도 지구 등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 중 일부 1.285km²가 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된다.

16일 여수시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제3차 공원계획 변경이 올해 4월 말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통과·고시됨에 따라 28일 이후 해제될 예정이다.

최종 해제 구역은 금오도 지구 1.25km², 거문·백도지구 0.035km²다.

해제지역 대부분이 남면 주민의 사유지로, 오랜 기간 지역주민들이 겪었던 재산권 침해 등 불편 사항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또 거문도 내 폐기물처리장 신설, 남면 우학항 전망대 설치 등 개발이 제한적이었던 도서 지역에 작거나 발달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는 지난 2018년 '금오도 지구 일부 해제 요구 주민 탄원서' 제출을 시작으로 국립공원 지정으로 지역주민이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해 환경부에 공원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공원구역 해제는 지난 5년간 여수시가 추진했던 타당성 조사 지역협의체 회의와 대체 편입부지 확보, 국립공원공단·산림청 등과 긴밀한 협의 등 기나긴 노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해제 대상 지역 중 사유지가 있는 주민은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된 지정도면을 열람하거나 국립공원사무소에 문의하면 공원구역 편입·해제 여부를 확인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할 수 있다.

환경부 장관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현행 국립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10년마다

국립공원계획을 변경·수립하고 있다.

여수=김현근기자

'순천도보여행자 순천워크' 제작지원 참여자 모집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가 '순천도보여행자 순천워크'제작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순천도보여행자 순천워크'제작지원 사업은 시민이 주도적으로 워킹 유튜버가 되어 순천의 아름다운 경관을 영상으로 담아내는 활동이다.

신청은 미디어 콘텐츠 제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개인 또는 팀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영상미디어센터는 제출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제작 역량, 아이디어의 참신성 등을 심사해 최대 6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원자는 1인(팀) 1편 기준 20만 원의 제작비와 영상미디어센터 내 공간 및 기자재를 지원한다.

활동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순천만 국가정원 및 순천시 일대의 거리와 명소를 걸으며 촬영, 제작한 콘텐츠로 순천의 경관을 기록할 예정이다.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관계자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기념하여 아름다운 순천을 기록하는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미디어센터의 공간, 장비를 활용하는 만큼 완성도 높은 작품을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지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광양시, 2023. 광양관광 사진 11월10일까지 공모

자연·역사·문화·축제·음식 등 미발표 사진 3점 이내

광양시가 '2023년 광양 관광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16일 광양시에 따르면 공모전은 광양 관광 슬로건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 여행'을 주제로 광양의 자연, 역사, 문화, 축제, 음식 등 광

양의 모든 풍경과 찰나를 자유롭게 포착한 작품이 대상이다.

참가 자격은 광양 관광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1인당 3점 이내 미발표 작품이어야 한다.

공모 기간은 16일부터 11월 10일까지며, 작품은 10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담당자 이메일(seho3849@korea.kr)로 신청받는다.

공모된 작품은 광양 관광 홍보 활용 가치를 중점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 결과를 11월 중 광양시청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선정자에게는 개별 통보한다.

대상 1명은 상금 300만 원, 최우수 2명 각각 100만 원, 우수 4명 각각 50만 원, 장려 10명 각각 30만 원 등의 상금이 주어진다. 채택

된 작품의 일체 권리는 광양시로 귀속된다.

시는 수상작을 대상으로 12월 중 관광사진전을 개최하고 광양시 홈페이지, 관광 SNS 등 광양 관광 홍보 전반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규영 관광과장은 "2023년 광양 관광 사진 공모전이 광양의 문화, 역사, 장소 등 광양 관광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광양의 가치와 숨은 매력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현근기자



고흥군은 귀농어귀촌인들의 이주 준비에서 실행, 정착하기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 인구를 유치하고 지역민과의 화합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린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선8기 '10년 후 고흥인구 10만의 기반'구축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귀농어귀촌인 지원과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전입장려 지원책을 내세워 인구 유치를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귀농어귀촌인이 고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고민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기 위해 맞춤형 지원정책을 다양화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고흥으로 이주를 준비하는 귀농어귀촌인들이 사전에 고흥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주 전 '살아보기'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고흥군, '귀농어귀촌 1번지' 조성 박차

주거환경 개선, 생활안정 지원 등 안정적 정착 여건 마련

▲농촌문화체험 팸투어 ▲청년 프로젝트 고흥에서 3달 살아보기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주 실행 과정에서는 이들의 생활안정과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귀향정년 정착장려금 지원 ▲귀농귀촌인 삶터 기반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주 후 귀농어귀촌인과 원주민 간 갈등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서로 소통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 교육 ▲귀농어귀촌인 유치 으뜸마을 만들기 등 융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정착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배 귀농어귀촌인 16명을 '정착도우미'로 지정해, 귀농어귀촌인에게 정착 노하우를 공유하고 필요한 농업 기술

과 지식 등을 전수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렇게 지역 정착에 도움을 받은 귀농어귀촌인은 원주민과 더불어 살며, 각자의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재능나눔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 도배·장판 교체, 담장 수리 등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 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아울러, 고흥군은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으로는 '2026년까지 주택 500호 이상 조성'을 목표로 택지개발을 통해 공공임대 주택을 권역별로 조성하고, 귀농어인의 집 확대, 빈집 리모델링 등으로 주거공간을 마련해 귀농어귀촌인 및 청년 등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할 계획이다.

고흥=기동취재본부

보성군, 2023 4대 폭력

예방 통합 교육 상황리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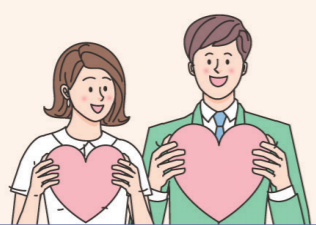
보성군은 지난 15일 보성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4대 폭력(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통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전, 오후 2차례에 걸쳐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 900여 명이 대상으로 실시됐다.

강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 강사이신 소장이 맡았으며 ▲공공조직 성인지 감수성과 조직문화 이해, ▲공공기관 내 4대 폭력 발생 예방 방법, ▲성희롱과 성폭력 관련 주요 사례 등을 강의했다.

특히 최근 성 비위 사건, 직장 내 건전한 대화 등의 사례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에 맞는 강의 구성으로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보성=김덕순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내 삶이 행복한 광산

누가 받나요?



방임, 유기, 학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성폭력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광산군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지원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